



## 2021학년도 논술고사

# 인문계열(오후)



성명	
전형	
수험번호	

표지를 제외한 페이지 수 : 6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혼자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라는 사실을 꺼려하며 무리의 주변을 맴돌며 기웃거리거나 비굴한 웃음을 흘리지 않는다. 독일의 심리상담가 마리엘라 자르토리우스의 말을 삶 속에서 깨우치게 되면서부터이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톨이로 여겨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리를 짓는 일에 열심이다. 모임을 만들고, 시시때때로 연락을 하고, 시간을 쪼개어 약속을 잡는다.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 날에는 우울해지고 나만 빼놓고 저희들끼리 만나고 있을 까 봐 걱정을 한다. 식당에 들어가 혼자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볼까봐 차라리 굽기를 택하고, 결혼사진을 찍을 때 배경이 되어줄 친구들이 없는 게 부끄러워 대행서비스를 통해 하객을 사기도 한다. 인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사회생활에서는 인간관계가 곧 재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더 조급해진다.

그런 이들은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자유로운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 혼자만이 만끽할 수 있는 기쁨과 그것을 통해 풍요로워지는 삶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다. 동행 없이 홀로 산책을 하면 남의 보폭에 나를 맞출 필요가 없다. 쇼핑을 할 때 혼자라면 타인의 취향을 강요당할 염려가 없으니 유행보다 개성을 따를 수 있다. 아직까지 혼자 뷔페에 가거나 고깃집에서 삼겹살 2인분을 당당히 구워 먹고 나온 적은 없지만, 홀로 기차를 기다리며 역전 재래시장의 식당에서 순댓국을 안주 삼아 소주 반병에 열근히 취했던 기억은 내가 경험한 어떤 여행의 추억보다 멋진 것이다.

외로워서 그리운 게 아니라 그리워서 외로워져야 사랑이다.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허겁지겁 사랑하기보다는 지나친 포만감을 경계하며 그리움의 공복을 즐기는 편이 낫다. 무릇 성숙한 인간관계란 서로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주고픈 만큼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낄낄 웃음 배풀면 그만이다. 그러니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단짝처럼 붙어 다니는 친구가 없어도 서운하거나 불안치 않다. 진정한 믿음과 이해는 미주알고주알 일상을 보고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 전달된다.

삶은 어차피 홀수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간다. 그 사실에 새삼 놀라거나 쓸쓸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가장 좋은 벗이 되어 충만한 자유로움을 흠뻑 즐길 수 있다면, 홀로 있을지언정 더 이상 외톨이는 아닐 테니까. 홀연히 왔다 홀연히 떠나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질경질경 자기 암시의 구호를 짓씹는다. “외로워져야 자유로울 수 있다!”

— 김별아, 『삶은 홀수다』

(나)

오랜 경기침체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실업률, 각박해지는 근로 환경에 젊은이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불안한 미래 속에서 점점 여유를 잃어갑니다. 중장년층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라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할애하죠. 사회 전체적으로 숨 쉴 틈이 없고 각박해지니 ‘함께’하기보다는 ‘혼자’ 편하기를 선호합니다. 물론 저도 매일 거의 ‘혼밥’을 하지만 이런 경향이 사회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은 그것이 마냥 좋기만 해서는 아닐 겁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보면 ‘함께’, ‘더불어’를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느낄 정도로 지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 ‘더치페이’ 문화가 자연스러워졌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내 돈 내고 밥 먹으면서 편치 않은 게 싫고, 홀로 할 때보다 함께할 때 비용이 더 드는 것도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 꼭 필요한 것에만 쓰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술 마시고 싶을 때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즐긴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죠.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 의미에서든 부정적 의미에서든 공동체 의식이 강한 한국인의 의식이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처럼 회자되는 것은, ‘혼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 현실을 드러내줍니다.

하지만 뭐든 혼자 하는 ‘혼족의 시대’는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고독사의 증가와 같은 쓸쓸한 사회적 현상을 동반할 겁니다. 어제의 인사가 오늘의 안녕으로까지 이어지는 걸 장담할 수 없고, 각자 사는 일에 바쁘다보면 그 사람이 며칠씩 안 보여도 그도 바쁜 모양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어디에선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나인 줄도 모르고 그냥 무심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억지스러운 기우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실제로 저 역시 일상에 파묻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심코 지나쳤고 결국 부고를 통해 그들의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 상념으로 괴로워지고 엄청난 아픔이 밀려옵니다.

‘함께’하고 ‘더불어’하는 걸 즐거워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와 ‘더불어’의 가치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을 가더라도, ‘함께’하고 ‘더불어’하는 일에 무심하고 귀찮아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작은 힘이나마 필요한 곳엔 ‘더불어’ ‘함께’ 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삶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지금보다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 한동일, 『라틴어 수업』

(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는 ‘나홀로족’이 늘면서 혼밥, 혼술에 이어, 혼영(영화관람), 혼공(공연관람), 혼행(여행), 혼쇼(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나홀로족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여파로 인해 혼자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20대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알바몬이 잡코리아와 함께 20대 남녀 2,928명을 대상으로 ‘나홀로족 트렌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20대 응답자 중 88.7%가 ‘평소 혼밥, 혼영 등 혼자서 해결하는 것들이 있다’고 답했다. 20대들이 혼자서 해결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혼자서 밥을 먹는 △혼밥이 90.2%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혼공(혼자서 공부하기, 68.9%), △혼영(혼자서 영화보기, 53.6%), △혼강(혼자서 강의수강, 50.0%), △혼술(혼자서 술 마시기, 27.1%), △혼행(혼자서 여행하기, 23.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들이 혼밥 등 평소 혼자서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가 편해서’였다. 설문조사에서 20대들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혼자가 편해서(46.1%)’를 1위에 꼽았다. 이어 2위는 ‘내 취향껏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31.8%)’, 3위는 ‘친구들과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25.5%)’가 차지했다. 이 외에도 ‘혼자 하는 편이 합리적이라(16.7%)’, ‘돈이 덜 들어서 경제적인 이유로(16.7%)’, ‘별 이유 없이 그냥(16.3%)’,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 할 일이 많아서(10.5%)’,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자 활동하는 게 안심돼서(9.4%)’ 등의 이유가 있었다.

— 잡코리아×알바몬 통계센터(www.jobkorea.co.kr)



[문제 1-1]

(가)와 (나)는 ‘홀로 있음’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여준다. 두 입장을 비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2]

(다)를 바탕으로 20대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가) 또는 (나)를 근거로 옹호하거나 비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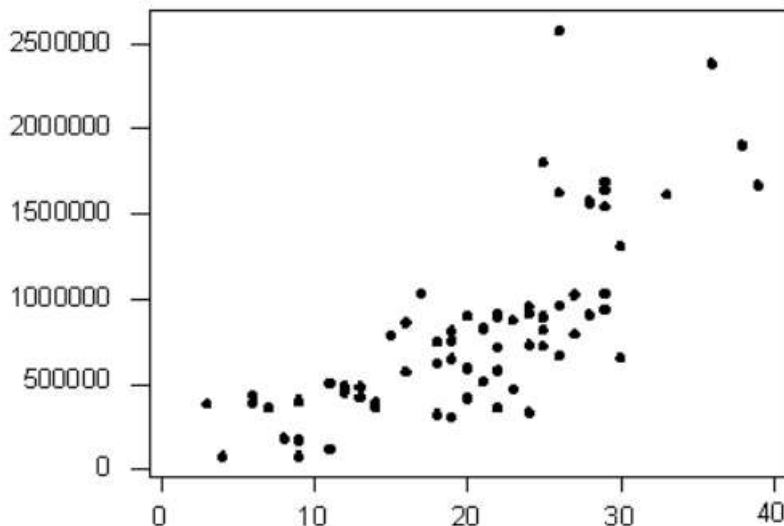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미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고등학생들이 치르는 SAT 성적은 인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수학 과목에 대한 백인 학생의 평균 성적은 800점 만점에서 534점이었던 것에 비해 흑인 학생의 평균 성적은 428점으로 나타났다. 백인과 흑인 학생의 이러한 성적 차이에 대해 인종차별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는 백인과 흑인의 선천적인 지적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백인 가정이 흑인 가정에 비해 더 부유하기 때문에 백인 학생의 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부유한 백인 부모들은 우수한 학군의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거나 SAT 선행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백인 학생들이 흑인 학생들에 비해 더 우수한 성적을 얻는다는 것이다.

(나)

아래 그림에서 가로 축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의 수를 나타내고 세로 축은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여준다. 아래의 그림을 관찰한 사람은 더 많은 소방관이 출동할수록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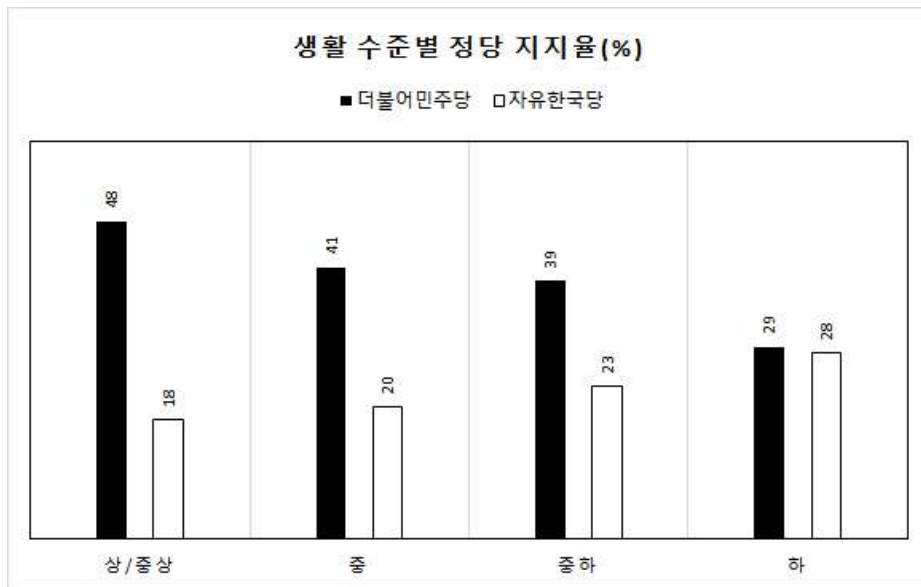


출처: <https://courses.lumenlearning.com/>

(다)

한 신문사는 아래와 같은 기사를 실었다.

부자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가난할수록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핵심 정책 방향과 정당 지지율이 상반된 결과로 나타난 셈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활수준별 정당 지지율은 일반적 상식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구조를 보였다. 생활수준에서 '상·중상' 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48%, '중' 41%, '중하' 39%, '하' 29%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지지율은 낮아지는 구조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생활수준 '상·중상' 18%, '중' 20%, '중하' 23%, '하' 28%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 '세금 축소' '복지 확대 경계' 등 부유층 입맛에 맞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정치 활동을 벌였다. 민주당은 '서민 지원' '복지 확대' 등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발에 힘을 실었다.

일반적으로 '부자(富者)의 정당'은 자유한국당, '빈자(貧者)의 정당'은 민주당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지만 여론조사에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다. 주요 정당이 정책적으로 공을 들이는 계층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얘기다.

출처: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60311252988400>

라)

<표>는 연령층에 따른 월평균 소득과 21대 총선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아래 표에 따르면, 20대와 70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장 낮았고, 민주당 지지율도 낮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높은 연령층일수록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높게 나타났다.

<표> 연령층에 따른 월 평균 소득과 민주당 지지율

연령층	월평균소득 (만원)	민주당 지지율
20 대	156.7	40.6%
30 대	320.0	56.3%
40 대	364.5	58.2%
50 대	340.0	51.2%
60 대	235.0	42.2%
70 대	168.0	41.0%

[문제2-1] (가)에서 “인종이 학생들의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인종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수준이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한다. ① 첫 번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어떤 학생들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하는가? ②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은 어떤 학생들을 서로 비교해서 어떠한 분석결과를 얻을 때 뒷받침될 수 있는가? ③ (나)에서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진다”는 주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2-2] (다)의 “부자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가난할수록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신문기사 결론에 ①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라)의 자료를 통해 지적하시오. ② (라)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신문기사 결론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사례들을 비교해야 하는가를 설명하시오. ③ (가)의 “인종이 학생들의 SAT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나)의 “소방관이 많이 출동할수록 화재 손실이 커진다”는 주장과 (다)의 “부자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주장은 공통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